발행 전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소식지편집위원회/ 발행일 2018. 9. 8/ 주소 세종시 전의면 운주산로 1177 / 전화 044-862-9093/ 팩스 044-862-9093

주민공동체가 만드는 공동체이야기
전의(全義) 마을신문

전의소식

2018. 9

신문모아보기

2. 골목문화축제사무국

개소식

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심지회의

4. 기관·단체활동

전의유치원

7. 전의역사문화탐방

우리지역 역사문화

행복마을 전의소식은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 되어지는 과정을 면 민이 함께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창구이자 함께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지역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주민들의 손으로 만든 전의면 소식지 입니다.

언제든지 주민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 원고를 기다립니다.
마을관련기사 및 이야기 제보: 편집위원회 044-862-9093 / 광고 및 후원: 010-9402-3421(담당 윤혜란편집위원)

전의다움

10월, 전의마을신문'전의다움'으로 새 단장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이야기의 장으로 엮어내.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 축제가 기획되고 있다. 바로 전의 골목문화축제가 그것이다.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 축제에 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 축제가 기획되고 있다.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200억 사업) 최종 선정

세종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설명회가 2017년 9월 7일 목요일 19시에 전의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가지며 시작되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세종시 조치원 상리와 전의면 읍내리가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 되었다.

세종시 전의면 읍내리 일반 근린형 사업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4년간 국비 100억과 시비 100억 등 총 200억의 사업비가 각각 투입된다. 세종시가 선정하는 광역평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의면 읍내리는 '전통과 문화·풍경을 그린 전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부제로 했다.

전의면 읍내리는 2019년부터 시작하여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조경수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내버스정류장 확장 이전이 추진된다.

현재 시내버스를 정차할 곳이 없어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도로와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에 주정차를 하고 있어 안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위함한 상황속에서 이번에 뉴딜사업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확장 이전이 된다면 주민들이 숙원하던 일이 잘 될 것으로 본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가로 환경개선 사업과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시골지역의 노년층과 다문화가정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이 확보 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도 함께 진행될 것이다.

뉴딜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의주민들의 TF팀과 세종시청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하나하나 의견을 수렴하여 얻어낸 결과물이라 더 소중하다.

전의면 면민들의 역량이 날로 강화 되어가고 있다. 모두함께 한다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날이었다.

전의소식 주민기자

2. 인물

“세종시 첫 읍면동장 시민추천 이동환 조치원읍장 선정”

주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북세종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의면 신정 1리 가나물이 고향인 이동환 조치원읍장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전의면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 4월 8일 첫 발령지인 전의면사무소에서 1년 6개월간 근무를 하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후 복직하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을 맞이하기 위한 도로 정비 및 간판정리를 하였으며 1986년 11월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근무를 하였다.

세종시 출범으로 세종시 인사조직담당실 인사조직 담당계장과, 정보 문화체육, 청춘조치원과장으로 근무를 했다.

이번 조치원읍장 후보 심의는 조치원읍, 연서면,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 주민대표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치원읍장 후보 3명 가운데 이동환과정이 최고의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으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모 또한 지속적으로 적십자 여성 의용소방대장 밥드림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동환 조치원읍장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할 것이라 말했다.

이동환 조치원읍장은 고향인 전의면장으로 와서 고향 어르신들께 봉사하며 살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북세종권 관할로 찾아 뵙고 도와드리고 싶다는 아쉬움을 전하며 전의를 사랑하는 애향심이 넘치는 조치원읍장이었다.

전의소식 주민기자 윤혜란

2. 골목문화 축제추진사무국 개소식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축제위원회

축제위원회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일을 잡았다.

축제일은 2018년 10월 20일과 21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한다.

프로그램부스를 체험(20개 부스) / 특산품(20개 부스 공연관련 인물 선정, 섭외 및 협의 필요 양곡리 주민대학 어르신들 영어연극공연 바이올린 연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사생대회는 교육청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참가율이 높을 것같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할것이며 사생대회는 세종미술작가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생대회 심사는 당일에 진행, 시상하는 것을 건의하고 실무위원회와 회의록이 공유되어야 일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여겨진다.

차량 및 버스노선 확인이 필요하며 지역상품 전시 및 판매 가 되어 수익 창출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초청장, 리플릿, 쿠폰, 기념품의 배부 논의를 거치고 다음해 왕의 물 축제가 앞으로 당겨졌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다. 상인회와 협의 및 조율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축제 홍보는 사무국 내 홍보전담 인원배당 아 필요 하다. 홍보를 통해 효과를 높여야 하고 포스터 제작과 보도자료 준비도 필요하다. (포스터 9월 초에 배포되어야 함) 세종시 아파트 단지 내 홍보는 약 일주일 실시하자는 건의가 나왔다.(세대당 약 250원)

행정에서 지원 가능한 시스템 검토도 필요하다.

영상 제작 약 17초 예정(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간이 긴 것으로 수정가능)

기관의 홍보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게시판, SNS 등)

플랜카드 게시료 문의 및 예약이 필요하며 사전홍보와 메인 홍보 실시가 필요하며 특산물, 골목축제부스 사전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자의 직접적인 참여 독려와, 축제 홍보 역할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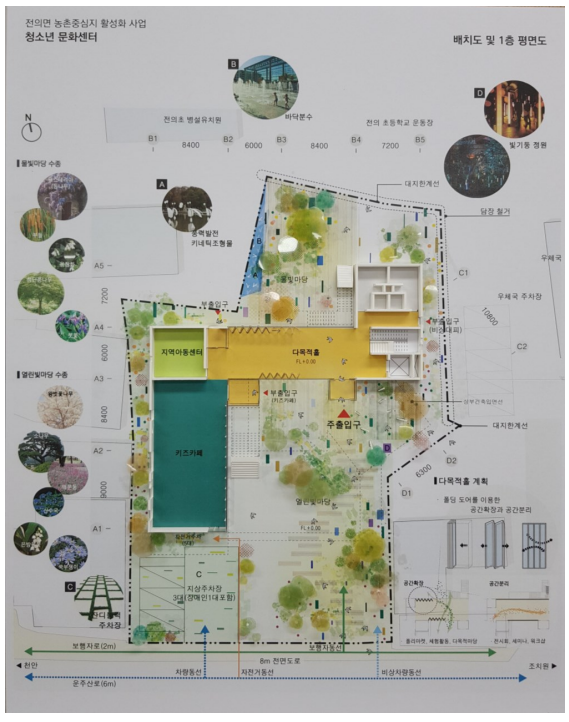
축제홍보가 전의홍보로 이어졌으면 함

축제 준비사항 행사보험(상해보험) 은 꼭 들어야 하고 사생대회 는 학교당 인원제한 건의와 사생대회 한국미술협회 심사위원 지원, 상징성 있는 심사위원 위촉이 필요하다. 사생대회(백일장) 사전공문 필요하다. 사생대회 돗자리 제공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다. (축제 로고나 이미지 삽입하여 제공)

사생대회 용지에 미리 위원장 도장을 찍어 공정성 확보

마을에서 최소 5개 이상의 부스가 나오기를 바란다.(양곡리, 산정리, 금사리 등)

주민제안공모사업팀 부스참가 의무화 및 알림과 공연 메인 무대 팀과 대안팀 구성 필요 공연참가자의 공연장소와 시간안배 필요 및 축제당일 모기방역에 대해 보건소에 문의하며 참가자에게 지급할 기념품 확보 필요가 필요하며 봉사자, 축제위원 표식을 위한 티셔츠 제작 필요하며 축제전용 카드, 엽서형식의 명함 제작도 필요 하다.



기타사항 왕의물축제, 조경수축제에 연계하여 진행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며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수익창출의 구조가 필요하다.

축제 시스템화를 통해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건축위원회

카페몽드 관련 논의 필요한 기계 검토 (전자렌지, 커피머신, 정수기, 커피 그라인더, 하부냉동고, 수납장, 싱크대, 업소용 냉동고, 인덕션, 오븐 등)

1자형 바테이블 사용사례를 통한 이용안내와 오른쪽 벽면 워크스테이션형식의 테이블배치 및 색상배치를 통한 경쾌한 이미지와 유기농(친환경)생필품, 전의내의 공동체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 필요하며 폴딩 도어 배치 논의도 필요하다.

홍보관 관련 논의 2안 1. 프레임없이 오픈형공간으로 탄력적인 공간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배치와 2. 일반형으로 의자와 테이블을 통한 가구배치 내부가구(제작가구) 비용 처리에 관한 논의 가구배치를 도면에 나타내 나중 인테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사무실에서 1층 내부파악이 가능한 창이 있으면 하고 기자재 구입비 책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대비해놓기를 바라고 있다.

문화센터 관련 논의

알루미늄복합판넬 사용에 대한 우려 검토가 필요 BF인증 8월 중순 예정 공사내역에 대한 예상액을 알 수 있다.

편집위원회

편집관련 건의사항 편집소위원회에서 편집위원회 자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9월호에 10월호 변경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하기 바란다.

(예시-10월부터는 전의소식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함께해주세요) 축제관련기사 작성해주실 분 모집 과 글씨체 축소, 사진크기 변경, 레이아웃 변경 건의가 있고 소식지 후원인 모집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진위원회의

지역역량강화 현황보고 협동조합교육일정 조율 중 주민제안사업 신청자에게 사업ㅂ의 50%를 지급하였으며 부가세 법인신청팀 지급 사업계획서 검토 후 지급여부 결정과 모니터링 양식 첨부 실사 설문조사형식 선진지 견학 참가신청서 작성 필요. 여행사견적에 따라 자부담 내역별도 사전교육 현장교육 견학일지작성 및 워크숍예정 전의소식지 배부대 시안 홍보물품과 수건 500장 문화센터 1층 배송완료 했다.

2019년 주민제안공모사업 선정과정 및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가 필요하고 추진위원회 안에서 공모사업 진행에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향모색 리더교육안 협동조합 교육안 다음 회의에 준비를 바라고 있다. 브랜드개발사업 진행방식 논의 전국공모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 중 주민아이디어 공모로 진행하기를 바라며 주민심사 수정된 아이디어로 결과물 제작은 전문가 다음 회의에 세부내용 살펴보고 BF 인증공모발송하기로 했다.

청춘조치원과 현장방문 홍보관 맞은편 공원 자전거대여소 설치의견을 제출했으며 전의지역 특산물 공모전 진행이 확정되었다.

전의소식 주민기자

4. 기관▫단체활동

농민과 면민이 함께하는 전의농협

❑ 전의농협 조합원 한방 무료 진료 실시

7월 31일(화)부터 8월 03일(금)까지 4일간 전의농협 문화 복지회관 2층에서 조합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합원 한방 무료 진료를 실시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 전의 일등 감자 작목반 현장교육 및 선진지 견학

전의농협(조합장 고진국) 일등 감자 작목반은 8월7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리온 감자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 전의농협 한해 대책용 양수기, 호스 지원

전의농협(조합장 고진국)은 폭염 및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해 양수기50대와 마대호스를 무제한 공급하고 구입가격의 50%를 지원하여 폭염 및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드렸다.

❑ 전의농협 방충망 지원 사업 추진

전의농협(조합장 고진국)은 전의면 서정리 소재 우리스틸 테크판넬(대표 김영준)과 협조하여 관내 조합원 및 주민 100여 농가에 시중 가격의 30%대로 저렴하게 방충망 교체 및 수리를 하여 큰 도움을 드렸다.

제48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2019년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

페 더 급= ①한소정(사당중) ②이아름(석포여중) **③박지민(부강중),**권상미(광주체중) 경북 구미시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8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와 2019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각 시도에서 1900여명의 최고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석하여 경기를 가졌다. 선수들 중 세종시 전의면 박지민(부강중)학생이 국가대표선수 후보에 올랐다. 대회기간은 2018년 8월 12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7일간의 대회에서 좋은 쾌거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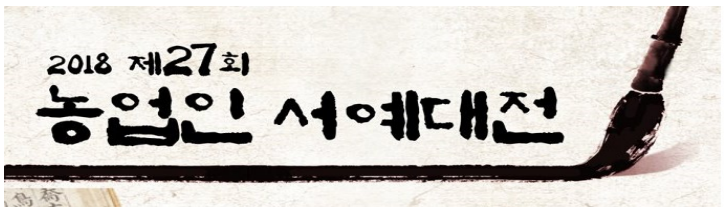
전의면에도 국가대표선수가 되어 올림픽 금메달를 목에 걸고 금의 환영하는 선수가 있기를 바래본다

5. 기관▫단체활동

신나는 여름캠프

싱그러운 초록빛, 뜨거운 햇살이 비추는 여름이 되어, 전의유치원은 지난 20일 전체유아를 대상으로 '신나는 여름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꾸라지 잡기, 워터슬라이드, 비눗방울 놀이, 물총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유아들이 가장 기억에 남길 수 있는 활동을 하였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협력, 협동심을 키우며, 다양한 신체표현을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선생님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을 느끼며 한층 더 성장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무더운 여름 이러한 원내 여름 캠프는 유아들이 손꼽아 기다릴 만큼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 였으며, 교실에서의 더웠던 생활을 원내 캠프로 인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 한 유아가 말하기를 ' 선생님! 매일 여름 캠프만 했으면 좋겠어요! " 라고 말한 것처럼, 유아들이 만끽한 여름캠프가 되었다.

전의소식 주민기자



▲윤건중(전의) ▲정진교(전의) ▲최청환(남세종)

농업인 서예대전에서 입선을 거두었다.

전의면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

전의도래샘작은도서관 제9회 책잔치한마당

장소 : 전의도래샘작은도서관

날짜 :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과 공연 먹거리 경품 추첨

TEL : 044-868-1014

6. 우리마을 이야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겨우내 얼어붙었던 우릴 따뜻하게 녹여주고

여름은 우리네 몸에 쌓였던 분비물을 땀을려 쏟아내주고

가을은 그렇게 소진했던 기력을 회복할 보약같은 햇살을~~

겨울은 다음 일년을 준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비하는 시간!

폭염 태풍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자연은 우리가 보호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연이 보호 해주고 있는게지요

사계절이 뚜렸했던 내 어린시절...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사계절을 과거로 기억하게 되는건 아닐까요?

얼마전 아이들과 함께 본 무지개

언제 무지개를 보았는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그 무지개를 보며 희망을 품어봅니다^^

글:이연희 그림:홍한나

퍼 즐

글 : 이미경

직선과 직각을 찾고

비슷한 색끼리, 모양끼리 모은다.

준비끝~~

자 이제 시작해볼까!~!

직선과 직각을 이용해 가장자리 맞추기

만만히 생각했는데 쉽지 안네..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어렵다…

눈알이 뱅글뱅글.. 눈이 어지럽다...

마침내 눈에 들어온 한 조각~

맞추고 나니 꽃이 완성..

예쁘다!

그것도 잠시~

이리보고 저리 보아도

전부 비슷 아니 전부같아 보인다...

어디서부터 맞춰야 할지..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 나온다...

한참을 뚫어져라 보니

그림이 닳아서 사라질 것 같다..

퍼즐 하나를 들고 동서남북 찔러 본다

제자리 잡은 퍼즐들이 따갑다고

아우성 치는 것 같다.

이틀간의 고생 끝에 씨와 꽃잎이

줄기와 이파리가 완성..

두구 두구…. Last one piece?

마지막 조각을 맞추니 뭉게 구름이다.~

내 앞에 뭉게 구름 뭉실뭉실 파란하늘

아래 노란 해바라기 들판이 펼쳐졌다.

닥터지바고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하늘이 예쁘다! 해바라기가 예쁘다!!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작은

기쁨이 생겼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 "새옹지마"

또다시 파이팅!

< 후원인을 모십니다>

따뜻하고 정감있는 고향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전의가 보내는 소식!
우리 동네
이런저런 정겨운 모습들을
꾸며 봅니다.

전의를 아끼는 모든 분들의
원고투고와 구독 신청을 바랍니다.
우리 전의 지역 역사 문화를
사랑하고 알리기 위해
든든한 후원인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지나간 자녀들 격려해주시는 마음
고향계신 부모님 그리워하는 마음
고맙게 받겠습니다.

후원계좌 : 351-0897-6663-23(농협)
예 금 주 : 왕우성
전의면농촌중심지활성화

7. 전의역사 문화탐방

대한제국시기 애국교육운동에 앞장선 전의 '대동학교'

국권상실을 목전에 두었던 대한제국시기 전의縣 세종시에서

학교 설립을 통한 계몽운동으로 국권회복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7월 25일 오전 10, 세종문화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김형목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이 '대한제국기 세종지역 국권회복운동'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알려졌다.

현 세종시 전의면에서 대한제국시대에 사립학교인 당시 전의군 '대동학교'가 설립되어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국권회복에 앞장섰다고 발표했다.

특히,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가 일제의 '보통학교령'과 '사립학교령' 등에 의해 규제가 심해지자 야학과를 설치하면서 계몽운동에 앞장서는 등 민초들의 저항정신이 학교 설립으로 나타난 것이다.

110년 전인 1908년 '대동학교 의무교육'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애국계몽사상의 선봉장격인 장지연(張志淵)주필은 황성신문에서 전의 대동학교 설립을 특필하여(황성신문 1908년 11월 12일) '全義郡 人士의 義務教育'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이는 국민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할지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고 위대한 일이 아닌가"라며 "전 충청지역 각 군에 이와 같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문명발달을 머지않아 볼 수 있으리라"고 평가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장지연에게 있어서도 주된 관심사였던 유교적 실천활동의 현재적 추구였기 때문에 전의지역에서의 의무교육운동은 신선한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대동학교는 지역 유지 이기하, 김경규, 전관식 등이 합심하여 전의향교의 명륜당에 설립한 것으로 교장에는 이기하가 이름을 올렸다. (전의)군수 장인원이 성적 우수자에게 다수 상품을 하사하는 등 면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고 인원이 주도하면서 관내 7개 면 유지들이 각기 소유 농토를 기준으로 조 3승씩 출연하여 교세(校勢) 확장을 위해 의무학교로 운영되었고, 고등소학과와 심상과 학제가 있었다.

세종시 최초 사립학교는 경부철도 부설과 관련해 일본인 히라야마(平山好文)는 명예교사로 자원하여 일본어 보급을 위해 김창배, 이종국, 이해조 등이 설립한 기록이 있으나 전의군 동면의 광동학교, 배달학교 등이 연이어 설립되어 민중계몽운동으로 구국운동을 전개했다.

김형묵 연구위원은 세종시의 대한제국 시기의 국권 회복과 관련된 계몽운동을 전의군 內 학교 설립을 중심으로 조명하면서 아펜젤러의 배재학당, 선교사 스크린턴 여사의 이화학당 등 전국적인 흐름 속에 세종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전의 대동학교가 당시 '의무교육운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나?'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대동학교'의 역사성이 주목을 받았다.

1908년 대동학교는 전의향교 명륜당에 사립학교로 설립하였다가 1908년 8월 26일 칙령 제62호가 공포 실시된 사립학교령에 의해 전의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 이후 1915년 1회 졸업에 이르러 2년제에서 6년학제로 변경하고 여자반을 확대하며 해방이 된 후 초등학교로 개칭되고, 1994년 금사 송성 삼기 달성 등의 초등학교와 통폐합을 거쳐 현재 초등학교 109년의 역사를 수놓아 왔다. 조선시대의 학교가 대개 그렇듯이 전의현 관아터의 역사성을 훼손하고 전의초등학교가 세워졌다.

천년 전의의 역사를 오롯이 안고 있던 관아터를 근대교육의 명목下에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든 그들!
다시금 전의초등학교의 백년이라는 역사를 향교터와 연계시켜보면 안타까운 회한의 눈으로 보게 된다. 당시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의 대동학교의 건립은 내년 3.1만세운동의 100주년을 앞두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세종박팽년연구회 이경순

8. 9월 일정 소식지 광고

전의 골목문화축제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

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문의 : 044-862-9093